



광양예술창고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광양역사문화관

# ‘재탄생 문화공간’ 광양 원도심 문화벨트 주목

## 폐역·폐창고·한옥·근대건축물 잇는 여행 콘텐츠 시민들 지역 문화예술 향유·문화 콘텐츠 ‘만끽’

광양의 오래된 공간들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옛 광양역은 미술관으로, 폐창고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한옥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근대건축물은 문화유산으로 재탄생했다.

14일 광양시에 따르면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인서리공원,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관사로 이어지는 ‘광양 원도심 문화벨트’는 원도심 곳곳에 위치한 문화공간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한 문화관광 코스다.

각 공간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 예술과 역사, 건축을 함께 둘러볼 수 있으며, 이동 과정에서 원도심 골목길과 카페, 거리 풍경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여행의 시작은 옛 광양역 부지에 조성된 전남도립미술관이다.

과거 지역 교통의 중심지였던 광양역은 현재 전남도립미술관으로 새롭게 활용되며 다양한 현대미술 전시와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는 전남도립미술관은 광양 원도심 문화벨트의 대표 문화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맞은편에 위치한 광양 예술창고는 60여 년 된 창고를 재생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이다.

기존 창고의 목재 트러스 구조를 그대로 살린 공간에서는 전시와 공연,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광양예술창고는 산업유산을 문화자원

으로 재해석한 대표 사례로, 전남도립미술관과 함께 원도심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아트 인서리로드’로 조성된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인서리공원이 나온다.

인서리공원은 14채 한옥을 활용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전시공간과 스테이, 북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한옥과 정원, 골목 풍경이 어우러져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광양예술창고와 광양역사문화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관사 등을 연결하는 문화벨트의 중심 공간으로, 원도심 문화공간을 둘러보는 동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광양역사문화관은 일제강점기 광양군청사를 재생한 역사문화공간으로, 건물 자체가 광양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전시를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있으며, 역사적 건축물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원도심 재생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광양의 변화 과정과 시민들의 삶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문화벨트의 마지막 공간은 100여 년의 시간을 간직한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관사다.

1919년 건립된 이 건축물은 근대 산림 행정의 역사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현재는 전시와 문화 활동이 운영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랜 시간 보존된 건축물의 모습을 통해 근대 건축의 특징과 광양의 역사적 흔적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광양 원도심 문화벨트는 폐역과 폐창고, 한옥, 근대건축물 등 기존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조성한 문화관광 코스다”며 “원도심 곳곳의 문화공간을 걸으며 광양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 순천 도심에 멸종위기종 ‘다목장어·수달’ 산다

### 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서 도심 생태축 입증 “생태계 건강성 점검…모니터링·보전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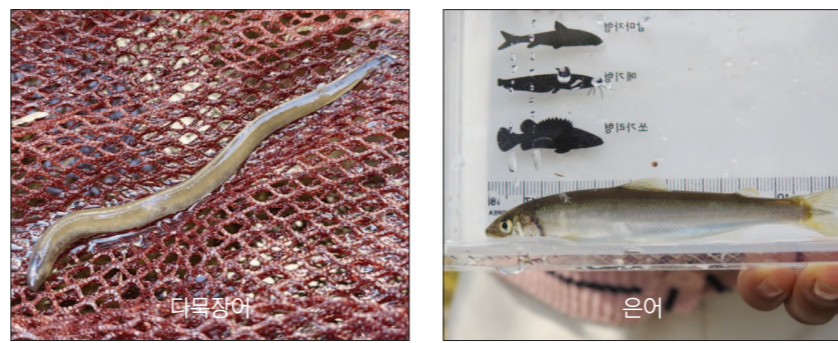
순천 도심에 멸종위기종 다목장어와 수달이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최근 옥천 일대에서 ‘제8회 순천시 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를 진행, 그동안 공식 기록이 없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다목장어’를 최초로 발견했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 Ⅰ급 ‘수달’의 흔적을 비롯해 청정수역의 대표 지표종인 ‘은어’의 서식도 확인되면서, 옥천이 다양한 생물종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심 생태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조사 결과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단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다목장어’의 확인이다. 다목장어는 턱이 없는 뱀과 닮은 외형과 7살의 아가미구멍을 가진 독특한 외형의 하천 고유종이다. 최근 하천공사와 수질오염으로 전국적인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이번 발견은 옥천이 다목장어가 생존할 수 있는 청정하고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옥천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입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의 모습도 포착됐다. 조사단은 남문고 밑에서 발견된 배설물 흔적을 토대로 생태 모니터링 카메라를 설치해 수달의 활동을 직접 확인했다.

옥천 하류 성남교 인근에서는 청정수역의 대표 지표종인 ‘은어’도 함께 확인됐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대탐사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 하천의 우수한 생태 가치를 직접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옥천과 동천이 건강한 수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모니터링과 보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

## 고흥, ‘호기심 가득, 박물관 캠프’ 운영 3개월간 체류형 문화관광 프로그램 6회 운영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가족 간 소통과 캠프장 활성화에 위해 오는 8월 16일까지 ‘호기심 가득, 박물관 1박 2일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초·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캠프객을 대상으로 하며, 6월부터 3개월간 월 2회, 토요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5일부터 예약 접수를 시작한 이번 캠프는 전국의 캠프 가족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자녀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와 함께 박물관 관람과 분청사기 도자기 체험을 결합한 가족 단위 체류형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일정과 참가 신청 방법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061-830-5994) 에문의 하면 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자녀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 여수, 섬박람회 교통혼잡 선제 대응

### 과학적 교통수요 분석

여수시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교통혼잡 대응 시뮬레이션 운영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정현구 부시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여수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기술사, 대학교수 등 교통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장 주변 교통 운영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교통 시뮬레이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박람회 기간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분석하고 원활한 이동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평일과 주말, 개막식, 대형 행사 등 관람객이 집중되는 상황을 가정 한 교통흐름을 검토했다. 이어 돌산지역 주요 병목구간과 교차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신호 운영 최적화와 차량 분산 유도, 셔틀버스 및 대중교통 연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특히 행사장 진입 교량과 주요 교차로의 수용 능력, 주차장 운영계획, 셔틀버스 수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 보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활동 전남노동권익센터와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추진

보성군은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최근 회천면 감자 수확 현장을 찾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전남노동권익센터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으로 마련됐다.

보성군과 전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들은 회천면 일대 감자 수확 농가 5곳을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크림, 얼음물을 제공하며 근로자들의 무더위 속 건강 관리를 도왔다.

특히 수시로 물 마시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무더운 시간대 작업 강도 조절하기 등 여름철 농작업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온열질환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당부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폭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각지대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6개국 1212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농번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노동 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 곡성, 로즈 캔들홀더 프로그램 체험객 모집 20~21일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선착순 40명

곡성군은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섬진강기차마을 장미공원 내 장미의 뜰에서 ‘로즈캔들 홀더 만들기’레진아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진행된 장미꽃꽂이 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장미를 활용한 색다른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투명한 레진 소재를 활용해 드라이 장미를 배치하고, 왁스 켈을 굳혀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로즈캔들 홀더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완성된 작품은 캔들을 담아 분위가 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반지·귀걸이 등 작은 액세서리를 보관하는 트레이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높다.

프로그램은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에 ‘장미의 뜰’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체험 소요 시간은 1시간30분이며, 일별 20명씩 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섬진강 기차마을 입장권을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17일까지 네이버폼(https://naver.me/xoGGVSpz)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장미의 아름다움을 일상에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레진아트 체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도록 계절과 테마를 반지·귀걸이 등 작은 액세서리를 보관하는 트레이로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성이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